

인생길

작성일: 2011. 2. 24. (목)

작성자: 김진미 (부산진총 열매 한마음 합봉교회)

[오랫동안 산기도 하는 가운데
하나님의 역사의 가치와 시대 사명자의 가치에 대해
말씀해 주셨고,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
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임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.
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며,
지금은 부족하지만 온전히 성장하여
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
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사랑하며 같이 사는 것이
제 유일한 소원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.
그러한 눈물의 고백을 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]

* 하나님 말씀 *

내 사랑, 나 여호와니라.
네 기도 보았고, 네 눈물 보고 또 보았노라.
사랑한다, 사랑아!
간절한 기도 소리에 내 응답하고 응답하노라.

사랑하는 섭리의 신부들아,
사랑하고 사랑한다. 너무나 사랑한다.
인생의 여정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다.
그러나 그 길 끝에 나 여호와가 있기로
소망의 길이요, 희망의 길이요, 기쁨의 길이다.

인생의 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?
인생 100년을 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?
너희는 온전히 알고 인생길을 가야 한다.
인생길은 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
나 여호와를 향한 길이다.
그 인생의 노정이 각 인생마다 다 제각각이나
그 결국은 나 여호와를 찾아가는 길인 것이다.

사랑아, 산을 그려 보아라.
그 산길을 올라가는 것이다.
높고 험난한 산, 완만한 산, 절벽 길 같은 산...
많은 인생의 산들을 넘으며 결국
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그 길 가는 것이다.

사랑하는 자들아,
너희는 그 길 온전히 그 뜻 알고 가는 것이냐?
나 여호와를 찾아오는 그 길,
진정 너희가 나를 뜨겁게 사랑으로 맞을 날을 기대
하며
인생산 오르길 바라노라.

절대 그 인생길 포기하면 안 된다.
목적 없이 가면 안 된다.
목적 없이 가는 길 고생길이요,
고통길이요, 사망길이다.
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,
그 인생길을 올라와라.
절대 제자리걸음 하면 안 된다.
늘 노래하며 늘 기뻐하며
나의 사랑의 산에 올라와라.

그러나 산을 오르는데도 그냥 준비 없이 오르면 안
된다.
산길을 가는 데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갖추고 가야
그 길 쉽게 갈 수 있다.
말씀으로 전신 무장하자.
말씀의 신발, 말씀의 옷,
말씀의 각종 도구들을 갖추서 가자.
지치지 않도록 희망과 소망으로 가는 거다.
그때그때 네 앞에 있는 산에 오를 수 있도록
내가 말씀 주니 그 말씀 붙잡고 가자.

말씀이 생명의 키다.
말씀이 천국의 열쇠다.
말씀이 나에게로, 천국으로 오게 하는
지도다, 나침반이다.
말씀이 구원의 열쇠다.
말씀이 나의 성산에 오르는데 필요한
도구요, 장비요, 필수품이다.
그러니 나 여호와에게로 오기 원하는 자,
진정 나를 맞기를 원하는 자라면
먼저 말씀의 장비를 갖추고 올라와라.
절벽 길을 맞으면 장비 없이 어떻게 오를 수 있겠
느냐?
장비 없이 오르다 죽음을 맞기도 한다.
그만큼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줄이다.
그러니 절대 나의 말씀 붙잡고
나를 향해 인생길 올라오라.

(다음날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.)

인생길에 대해 한마디 더 하련다.

인생의 노정,
육계를 넘어 영계까지 다다르는 노정이다.
육을 넘어 영으로 가는 길이다.
사랑하는 자들아,
너의 인생길 절대 무가치하게 보내면 안 된다.
너무나 귀하고 귀한 생이다.
나 여호와가 너희 인생에게 부여한 최고 축복의 생
이다.

육으로 살면 인생이라 할 수 없다.
육으로만 끝나면 인생이 아니지. 짐승이다.
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,
눈을 감고 너희 인생길을 잘 생각해 보아라.

내 사랑아,
네 소망 네 소원 오직 나 여호와라 하였지?
그렇다면 내 그 길, 나에게 오는 그 길 가르쳐 줄
게.
지름길 말이야. 지름길이 무엇인지 아느냐?
바로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와야 하는 것이다.
먼저는 내게 오는 길,
그리고 그 문이 되는 것이 내 아들 예수다.
내게 바로 오는 길은 없어.
내 아들 예수를 통해 내게 오는 것이다.
그러니 나를 찾기 이전에
내 아들 예수를 온전히 찾아야 한다.
내가 그로 내게 오는 길이 되게 하였으니 그러하다.

사랑아, 나 여호와를 찾고 천모 성령을 찾고
내 아들 예수를 찾고 각각 삼위를 온전히 찾아야
한다.
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오기 위해서는
내 아들 예수의 가치를 알고
그를 온전히 찾고 사랑하여야 한다.
그것이 지름길이요, 내게로 오는 참 길이다.

그리고 이 시대 내게 오는 길이 무엇이냐?

내 아들 예수의 몸 되고 나의 몸 된
너희 선생이 이 시대의 문이다.
근본은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내게 오는 것이다.
그리고 이 시대는 내 아들 예수가 육이 없는 고로
그 영체가 직접 역사하는 너희 선생이
이 시대 내게로 오는 길이 되고 문이 되었다.

그러니 너희가 진정 나 여호와 보길 원하거든,
나 여호와에게 오길 원하거든
너희 선생을 통해 내 아들 예수를 찾고
나 여호와를 찾아오라.
너희 궁극의 인생길의 종점은
바로 나 여호와가 되어야 한다.

끝까지 와야 한다. 끝까지다!
그 인생길의 끝에 나 여호와가 두 팔 벌리고
기다리고 있으니 꼭 내게 와야 한다.

인생길...
내게 오다 마는 인생, 인생이라 할 수 없지.
미완성된 작품이요, 흠이 난 물건이요,
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인생이요,
버려진 인생이 되는 것이다.
그러니 내 사랑들아, 끝까지 내게로 나오라.
내 아들 예수를 통해,
이 시대 내 아들의 육신 된
너희 선생을 통해 내게 나오라.
사랑한다.